

원유시장 동향

오 세 신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ssoh@keei.re.kr)

1. 국제유가 동향 및 분석

가. 국제유가 동향

2012년 3분기까지 소위 롤러코스터 행보를 보였던 국제유가는 4분기 들어 뚜렷한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다.

1분기에 국제유가는 이란 핵문제 여파로 상승세를 꾸준히 유지하였다. 1월 두바이 원유가를 기준으로 배럴 당 105달러 내외를 기록하였으나 3월 중순에는 124달러로 연중 최고치까지 상승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1분기 동안 두바이 원유의 평균가는 배럴당 116.38달러로 2011년 1분기 보다 15.54달러 상승하였으며, 역대 1분기 명목가격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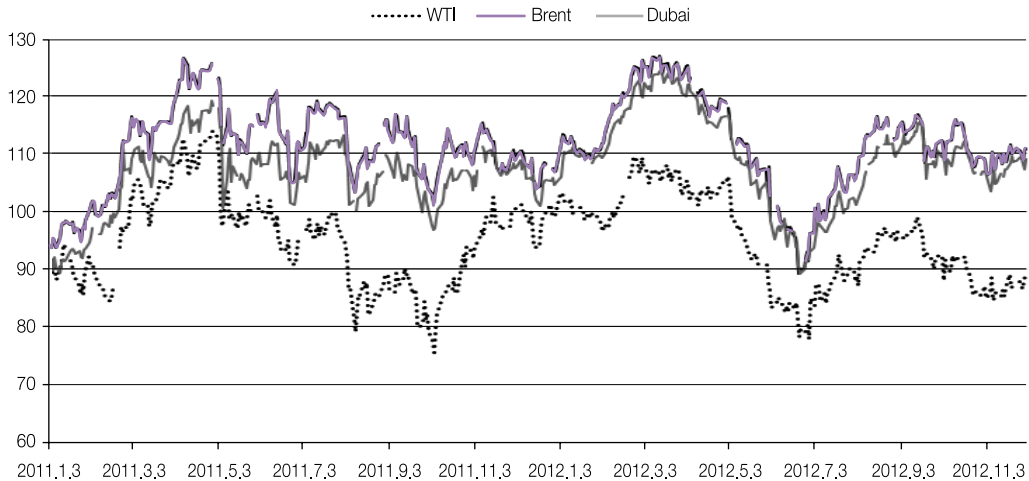
2분기에는 유로존 경제붕괴 우려와 이란 핵협상 재개로 국제유가가 급락세로 전환되었다. 120달러대를 맴돌던 두바이 원유가격도 6월 하순에 접어들면서 89.15달러까지 하락하여 2011년 1월 이후 18개월 만에 처음으로 90달러 아래로 떨어지기도 하였다. 2분기 평균 가격은 106.19달러로 2011년 2분기에 비해서는 4.15달러 하락한 수치이나 2분기 명목가격 기준

으로 2008년과 2011년에 이어 역대 3번째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3분기 국제유가는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이란 핵협상 실패와 시리아 내전 등 중동 정세불안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두바이 원유가는 7월 초 94달러 수준에서 9월 중순에는 다시 115달러까지 상승하였다. 3분기 평균으로는 배럴당 106.09달러를 기록하여 2011년 3분기보다는 0.86달러 하락하였지만 역시 2008년과 2011년에 이어 명목가격 기준으로 역대 3번째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4분기부터 국제유가는 변동성이 상당히 줄어드는 가운데 소폭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배럴당 109달러로 4분기를 시작한 두바이 원유가는 10월 중순에 112달러까지 상승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 11월 5일에는 103달러까지 떨어진 후 11월 말 현재에는 105달러 내외에서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4분기부터 유가가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이란 핵문제와 시리아 내전 등으로 인한 중동 석유공급의 대규모 차질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2012년 내내 지속되어온 석유공급 과잉 현상과 유로존 경기침체 및 세계 경제의 동반 둔화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림 1] 국제원유가 추이



〈표 1〉 2011~2012년 국제 원유가 추이

(단위: 달러/배럴)

유종	2011					2012				
	1/4	2/4	3/4	4/4	평균	1/4	2/4	3/4	4/4*	평균*
두바이	100.84	110.34	106.95	105.69	105.98	116.38	106.19	106.09	108.14	109.26
브렌트	105.56	116.96	112.75	109.18	111.08	118.53	108.39	109.44	110.47	111.87
WTI	94.56	102.29	89.51	94.12	95.10	103.09	93.34	92.16	88.17	94.67

주: * 2012년 4/4분기 및 연평균은 11월 30일까지를 기준으로 함.

자료: 한국석유공사

나. 유가 변동요인 분석

최근 4분기 국제유가의 변동요인 또는 석유시장의 주요 사안들은 2012년 석유시장을 전반적으로 좌지우지해온 사건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즉, 유로존 경기침체에 따른 세계 석유수요의 둔화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석유공급 감소 우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도와 깊이를 달리하며 유가의 진행방향을 그때

그때 결정해왔다고 볼 수 있다.

먼저 2012년 세계 석유수요는 3분기까지 유로존 몰락에 이은 세계 경제의 동반 둔화로 2011년에 이어 둔화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1년 세계 석유수요는 1.0%(87만b/d) 증가하여 지난 10년 연평균 증가율인 1.4%(112만b/d)를 크게 하회하였으며, 2012년 3분기까지 평균 0.9%(77만b/d)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증가세 둔화는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세계 석유수요 둔화 현상

은 세계 경기의 둔화세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원지에 해당하는 유로존의 경제가 회생되지 않는 한 최소 2013년 말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유로존은 올해 2분기에 한 차례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 고비를 넘긴 바 있으며 회원국 17개국 중 경제규모 4위인 스페인이 처음으로 은행권에 대한 구제금융을 신청하였다. 이로 인해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황이 그리스를 거쳐 스페인과 이탈리아로 번지고 유로존의 붕괴가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로부터 시작될 것이란 우려가 석유시장을 장악하였으며, 덕분에 국제유가도 2분기 동안 거침없는 하락세를 보였다. 그러다 3분기 들어 유로존 정상들이 모여 유로존 위기국들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면서 유로존 붕괴에 대한 시장 불안감은 대폭 완화되었다. 우선 유럽연합(EU)과 유럽중앙은행(ECB), 그리고 국제통화기금(IMF)으로 구성된 트로이카가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으로 1,300억 유로를 지급하는데 합의하였으며, 스페인에 대해서도 1,100억 유로를 지원할 수 있음을 표명하였다. 여기에 유럽중앙은행이 유로존 위기국들의 채권을 무제한 매입하기로 하면서 한때 사상 최고치까지 폭등했던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국채금리도 진정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4분기 들어서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 가능성이 재 부각되고 스페인이 구제금융 신청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유로존 재정 위기는 또 다시 화두로 올라섰다. 그리스의 재정긴축 노력에 대해 트로이카가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내며 2차 구제금융 지급을 미루고 있으며, 스페인은 경기침체 심화에도 불구하고 국제발행 등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뭉치를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11월 8일에 135억 유로의 긴축을 담고 있는 그리스의 2013년 예산안이 그리스 의회를 통과하여 2차 구제

금융 지원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나 여전히 독일 등 유로존이 강력한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유로존에 드리워진 경기침체 그들이 더욱 짙어지며 세계 경제와 석유수요의 이중 둔화도 더욱 가속화될 것이란 시장 불안감으로 작용하였다.

중동 석유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는 상반기 이란 핵문제에서 하반기 시리아 내전까지 겹치면서 배가되었다. 2분기 이란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및 독일(P5+1) 간 핵협상이 결렬되면서 7월부터 이란 원유수출에 대한 제재가 본격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하반기 이란의 원유수출은 2011년 대비 130만b/d 가량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게다가 현재까지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보유를 고수하고 있어 이란 핵협상의 교착상태는 장기화되고 있으며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에 대한 폭격을 서두를 조짐을 보이고 있어 이란과 서방국가들 간 무력충돌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지난해 2011년부터 지속되어 온 시리아 민주화 시위가 2012년 들어 본격적인 내전으로 확대되면서 중동 정세불안을 가중시켰다. 특히, 하반기 이후에 시리아 내전이 주변국인 레바논과 터키, 이스라엘 등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중동 전역으로 전쟁이 확산되어 중동 석유공급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시장불안감이 형성되었다. 실제로 시리아 내전이 종파 간 전쟁이라는 점에서 주변국들의 개입이나 종파분쟁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인접국인 레바논은 시아파 집권 국가로 수니파인 시리아 반군에 대해 게릴라성 공격을 시도해 왔다. 또한 이란이 시리아 아사드 정권에 지지를 표명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등 수니파 집권 국가들은 시리아 반군에 전쟁물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게다가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 간 교전 과정에서 폭탄이 인접국가인 터키와 이스라엘로 날아들면서 터키와 이스라엘에서도 시리아 정부군을 향해 전투기와 전차를 동원한 폭격에 가담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는 레바논 내에서도 종파간 총격전이 벌어지는 등 중동 불안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시리아의 지리적 위치가 중동지역 중요 교역로에 해당한다는 점도 중동 석유공급 차질 우려를 높이는 요인이다. 시리아는 아라비아 반도 북단에 위치하며 유럽과 중동을 이어주는 내륙과 해안 경로를 모두 가지고 있다. 현재 이라크 원유수출의 북부 내륙경로인 세이한(터키)-키르쿱(이라크) 송유관이 시리아를 관통하고 있다. 따라서 시리아 내전이 인접국으로 확산되어 무력충돌이 심화될 경우 시리아의 석유생산 뿐만 아니라 유럽으로의 원유수출도 전면 중단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최근까지도 북해 브렌트 원유가 유가 강세를 이끌고 있다.

한편, 2012년 석유시장은 석유수급에 있어 공급초

과 상황을 지속해 왔다. 2012년 3분기까지 세계 석유 공급은 석유수요보다 약 130만b/d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2012년 국제유가는 세계 석유수급 상황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행보를 유지해온 셈이다. 다시 말하면 중동 석유공급 불안에 따른 리스크 프리미엄이 일정부분 국제유가에 반영되고 있다 할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 프리미엄의 정도는 많아야 10% 수준으로 그다지 높은 수준이라 할 수는 없다. 즉, 기초 석유수급 상황에만 기초하더라도 100달러 수준의 국제유가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에 근거한다. 첫 번째로 2010년과 2011년에 걸쳐 세계 석유공급은 수요보다 130만b/d 가량 부족하였다. 이 때문에 세계 석유재고도 약 4억 7천만 배럴 가량 감소하였다. 따라서 세계 석유재고가 2009년 말 수준까지 올라서기 위해서는 남은 4분기에도 130만b/d의 공급 초과 상황이 지속될 필요가 있으며 이 때문에 현재의 세계 석유수급 상황이 여유로운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

[그림 2] 시리아 및 주변 중동 인접국



자료: google.co.kr



〈표 2〉 2012년 7~11월 주요 유가 변동 요인

기간	변동요인
7월	• 노르웨이, 석유노조 파업 • 미국, 이란 국방부 관련 15개 단체 및 개인에 대한 해외 자산동결 • 스페인 국채금리(10년물) 7.5%로 사상 최고치 기록 • 유럽중앙은행(ECB), 국채매입 프로그램 발표 • 시리아, 내전 격화로 하루동안 수백명의 사망자 발생
8월	• 미국, 이란 석유·가스 및 우라늄 사업에 관여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해 제재 • 터키, 무장단체 테러로 송유관 폭발 • 북해 유전 8~9월 유지보수 돌입 • 남수단-수단 석유협상 타결 • 레바논, 시리아 수니파 반군 공격 • 이란-IAEA 간 핵협상 개최
9월	• 미국, 3차 양적 완화 결정 • 유로존 8월 실업률 11.4%로 사상 최고치 기록 • 리비아, 반미 시위대 습격으로 미국 대사 사망 • 이라크, 수니파의 연쇄 폭탄테러 발생 • 시리아 내전 격화
10월	• 시리아 내전 터키로 확대 • IMF, 2012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35%→3.3%) • 북해 Buzzard 유전 생산 재개 • EU, 이란 추가제재 합의 • 유로존 9월 실업률 11.6%로 사상 최고치 갱신
11월	• 미국, 오바마 대통령 재선 • 이스라엘-하마스 간 대규모 교전 발생 • 그리스 구제금융 437억 유로 집행 합의 • 스페인 39억 유로의 국채 발행 성공

이 있다. 두 번째는 세계 석유공급 비용의 상승이다. 최근 비OPEC 석유공급 증대의 원천이 생산비용이 높은 심해석유와 셰일오일 및 오일샌드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국제 원유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요인이다. 또한 중동 최대 산유국이자 여유생산능력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가 100달러 수준의 원유가에 맞추어 정부 예산운용을 하고 있다는 것 역시 세계 석유공급 비용을 높여

원유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2. 세계 석유수급 동향¹⁾

가. 세계 석유수요 동향 및 전망

국제에너지기구(IEA)는 11월 석유시장보고서(Oil

Market Report)에서 2012년 3분기까지의 세계 석유수요를 전년대비 78만b/d 증가한 89.4백만b/d로 집계하였다.

분기별로 살펴보면 유로존 경기침체 및 세계 경기 둔화가 확산됨에 따라 1분기에는 89.2백만b/d로 전년 동기대비 46만b/d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2분기에는 89.0백만b/d로 128만b/d 증가하여 석유수요 증가세가 회복하는 기미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3분기 들어서 유로존 경기침체 심화와 미국의 소비둔화 등으로 세계 석유수요는 전년 동기대비 61만b/d 증가하는데 그친 90.1백만b/d를 기록하였다.

경제 권역별로는 유로존을 포함한 OECD 국가들의 석유수요가 두드러진 감소세를 보였다. OECD 석유수요는 3분기까지 전년 동기대비 34만b/d 감소한 46.1백만b/d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가운데 미주²⁾지역의 석유수요는 35만b/d 감소하였으며, OECD 유럽³⁾지역의 석유수요는 57만b/d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아시아-오세아니아⁴⁾의 석유수요는 3분기까지 46만b/d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다른 OECD 지역과는 차별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나 1분기 일본 원전의 전면가동 중단으로 일본의 석유화력발전 가동률이 급증한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반면 비OECD 국가들의 석유수요는 증가세를 지속 하긴 하였으나 유로존 경기침체와 미국 경기둔화 여파로 중국과 인도 등을 중심으로 산업생산이 크게 둔

화되면서 석유수요 증가폭도 2010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 3분기까지 비OECD 석유수요는 전년 동기대비 122만b/d 증가한 43.4백만b/d를 기록하였으나 2010년에 200만b/d 이상 증가했던 것과 비교하면 그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셈이다. 주요 국가별로 살펴보면, 비OECD 최대 석유소비국인 중국의 석유수요가 3분기까지 22만b/d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인도가 15만b/d 증가세를 보여 아시아 지역 경기둔화의 영향을 반영하였다. 반면 중동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수요는 3분기까지 16만b/d 증가하여 예년보다 높은 증가폭을 기록하였으며, 러시아의 석유수요도 12만b/d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고유가 지속으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고 있음을 반증하였다.

2012년 4분기 세계 석유수요는 34만b/d 증가한 90.1백만b/d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유로존 여파로 세계 경기둔화가 가속화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석유수요의 둔화세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2년 전체 세계 석유수요는 89.6백만b/d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67만b/d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OECD의 4분기 석유수요는 46.1백만b/d로 전년 동기대비 67만b/d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012년 기준으로는 50만b/d 감소한 46.1백만b/d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비OECD 4분기 석유수요는 101만b/d 증가한 44.0백만b/d를 기록하여 연간 기준으로는 117만b/d 증가한 43.5백만b/d를 기록할 전망

1)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의 Monthly Oil Market Report와 미국 EIA의 미국 석유재고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정리함.

2) 미국, 캐나다, 멕시코, 칠레.

3)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벨기에, 스위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웨덴,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헝가리,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터키,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4) 한국, 일본, 호주, 이스라엘.

〈표 3〉 세계 석유수요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b/d)

구 분	2011					2012					2013	연간 증감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2012	2013
미주	24.2	23.8	24.2	24.0	24.1	23.4	23.7	23.9	23.8	23.7	23.8	-0.3	0.0
유럽	14.3	14.2	14.8	14.2	14.4	13.8	13.8	14.4	14.0	14.0	13.6	-0.5	-0.2
아·태	8.6	7.4	8.0	8.6	8.1	9.1	8.0	8.1	8.5	8.4	8.3	0.3	-0.2
OECD계	47.1	45.4	47.0	46.8	46.6	46.2	45.5	46.5	46.3	46.1	45.8	-0.5	-0.3
아시아	20.4	20.3	19.8	20.7	20.3	20.9	20.6	20.2	21.2	20.7	21.4	0.5	0.5
중국	9.3	9.3	9.0	9.4	9.2	9.6	9.2	9.3	9.8	9.5	9.8	0.3	0.3
중동	6.9	7.4	7.8	7.3	7.4	7.2	7.7	8.1	7.6	7.6	7.8	0.2	0.2
남미	6.1	6.3	6.5	6.4	6.3	6.2	6.3	6.5	6.4	6.4	6.6	0.2	0.2
구소련	4.2	4.4	4.6	4.6	4.4	4.5	4.6	4.8	4.8	4.6	4.7	0.1	0.2
아프리카	3.4	3.3	3.2	3.4	3.3	3.5	3.4	3.4	3.4	3.4	3.5	0.1	0.1
유럽	0.7	0.7	0.7	0.7	0.7	0.7	0.7	0.7	0.7	0.7	0.7	0.0	0.0
비OECD계	41.6	42.3	42.6	43.0	42.4	42.9	43.3	43.7	44.1	43.5	44.7	1.2	1.1
전 세계	88.7	87.7	89.5	89.8	88.9	89.1	88.8	90.2	90.5	89.6	90.4	0.7	0.8

주: *는 전망치.

자료: IEA Oil Market Report, 2012.11

이다. OECD의 석유수요 감소세는 4분기 들어 심화되는 반면 비OECD의 석유수요 증가세는 계속해서 축소되는 셈이다.

이러한 세계 석유수요의 둔화세는 역시 유로존 재정위기가 핵심요인으로, 유로존 경기침체 상황이 여전히 진행 중에 있어 세계 경제의 하강국면이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OECD의 석유수요 감소세가 계속될 것이며 비OECD의 석유수요 증가세 둔화 역시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비OECD 내에서 중동과 구소련 지역이 고유가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수혜지역으로 세계 석유수요 증가세

를 견인하는 새로운 동력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그동안 세계 석유수요 증가세를 주도해온 아시아 지역은 중국과 인도의 연착륙 정책이나 물가관리 정책 등으로 석유수요 증가세의 둔화도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이러한 추세가 적어도 2013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3년에도 세계 석유수요 증가세의 둔화가 이어져 2012년 대비 83만b/d 증가한 90.4백만b/d를 기록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OECD의 석유수요는 45.8백만b/d로 전년대비 31만b/d 감소하고 비OECD의 석유수요는 44.7백만b/d로 연간 113만b/d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세계 석유공급

2012년 3분기까지의 세계 석유공급량은 90.7백만 b/d를 기록하여 전년 동기대비 271만b/d 증가하였다. 분기별로는 1분기에 전년 동 분기대비 235만b/d 증가한 90.8백만b/d를 공급하였고 2분기에는 313만 b/d 늘어난 90.7백만b/d를, 3분기에는 226만b/d 증가한 90.7백만b/d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높은 석유공급 증가세를 이어갔다.

OPEC 석유공급⁵⁾은 2012년 3분기까지 37.68백만 b/d로 전년 동기대비 220만b/d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원유생산량은 31.53백만b/d로 전년 동기대비 180만b/d 증가했으며 NGLs 생산은 6.15백만b/d로 40만b/d 증가하였다. OPEC 원유생산에

서 중동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생산 증가가 독보적으로 이루어졌다. 2012년 3분기까지 중립지역 생산분⁶⁾을 제외한 사우디의 원유생산은 9.67백만b/d로 전년 동기대비 74만b/d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리비아의 원유생산은 1.37백만b/d로 94만 b/d 증가하였지만 리비아가 2011년 내전으로 원유생산의 대부분 중단되었기 때문에 생산복구 중에 있으며 2010년 원유생산이 1.6백만b/d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원유생산에 대한 기여도는 사우디가 크다 할 수 있다. 이라크의 석유생산도 2012년 들어 급격히 증가하였다. 3분기까지 2.89백만b/d를 생산하여 전년 동기대비 23만b/d 증가세를 보였으며, 3 분기에만 3백만b/d 이상을 생산하여 1990년 대 이후 가장 높은 생산량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쿠

〈표 4〉 세계 석유공급 동향

(단위: 백만b/d)

2013	2011					2012					2013	연간 증감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2012	2013
OPEC	35.7	35.1	35.6	36.2	35.7	37.4	37.8	37.8	-	-	-	-	-
crude	29.9	29.4	29.9	30.3	29.9	31.4	31.7	31.5	-	-	-	-	-
NGLs	5.8	5.7	5.8	5.9	5.8	6.0	6.1	6.3	6.3	6.2	6.5	0.4	0.3
비OPEC	52.8	52.4	52.7	53.2	52.8	53.4	52.8	52.9	53.8	53.2	54.1	0.4	0.9
총공급량	88.4	87.6	88.3	89.4	88.4	90.8	90.7	90.7	-	-	-	-	-
Call on OPEC	30.2	29.4	30.7	30.4	30.2	29.7	29.9	31.0	30.4	30.2	29.8	0.0	-0.4

주: 1) *는 전망치이며 OPEC 산유량은 생산쿼터 통제를 받기 때문에 별도로 전망하지 않음.

2) Call on OPEC은 전 세계 석유수요에서 비OPEC 공급량과 OPEC NGLs를 차감하여 산정함.

자료: IEA Oil Market Report, 2012.11

5) 원유와 NGLs로 구성됨.

6) 중립지역 원유생산의 50%는 사우디아라비아로, 나머지 50%는 쿠웨이트로 귀속됨.

웨이트 역시 중립지역을 제외하면 같은 기간 2.45백만 27만b/d의 높은 석유생산 증가세를 보였다. 사우디, 쿠웨이트와 함께 GCC 회원국에 속하는 UAE는 3분기까지 2.65백만b/d의 원유를 생산하여 16만b/d의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이란은 OPEC 회원국들 가운데 2012년 3분

기까지 원유생산 감소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산유국이다. 미국과 EU의 원유거래 제재 하에 놓여 있는 이란의 원유생산은 3.10백만b/d로 전년 동기대비 54만b/d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이란의 원유수출은 원유생산 감소분보다 많은 100만b/d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란 내 원유재고가 크

〈표 5〉 OPEC 석유생산 추이

(단위: 백만b/d)

구 분	2010	2011	2012			
			1/4	2/4	3/4	10월
OPEC	34.64	35.65	37.40	37.85	37.79	37.49
원유생산	29.30	29.88	31.37	31.73	31.48	31.16
사우디	8.05	9.04	9.65	9.77	9.60	9.55
이란	3.70	3.62	3.37	3.14	2.80	2.70
이라크	2.36	2.67	2.69	2.92	3.07	3.16
UAE	2.31	2.50	2.61	2.65	2.69	2.67
쿠웨이트	2.03	2.24	2.42	2.45	2.47	2.52
중립지역*	0.53	0.59	0.60	0.60	0.60	0.60
카타르	0.74	0.74	0.75	0.74	0.75	0.73
앙골라	1.73	1.66	1.77	1.76	1.72	1.79
나이지리아	2.08	2.18	2.06	2.17	2.17	1.95
리비아	1.55	0.46	1.30	1.40	1.42	1.38
알제리	1.21	1.18	1.16	1.16	1.18	1.15
에콰도르	0.47	0.50	0.48	0.48	0.49	0.48
베네수엘라	2.53	2.50	2.52	2.50	2.52	2.48
NGLs	5.34	5.78	6.03	6.11	6.31	6.33
비OPEC	52.58	52.77	53.37	52.83	52.91	53.43
총 생산	87.22	88.43	90.77	90.68	90.70	90.92

주: * 중립지역 원유생산량의 50%는 사우디아라비아로, 50%는 쿠웨이트로 귀속됨.

자료: IEA Oil Market Report, 2012.11

게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12년 3분기까지의 비OPEC 석유공급⁷⁾은 53.0백만b/d로 전년 동기대비 38만b/d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기별로는 1분기에 53.4백만b/d로 전년 동기대비 61만b/d 증가하였으며, 2분기에는 42만b/d 증가한 52.8백만b/d를, 3분기에는 52.9백만b/d를 기록하여 전년 동기대비 20만b/d 늘어나는데 그쳤다.

비OPEC 석유공급은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시리아, 예멘 그리고 남수단 문제 등으로 석유생산이 크게 감소하고 북해 유전의 노후화에 따른 생산량 감소세도 지속된 가운데 북미지역 비전통 원유의 빠른 증가와 구소련과 아시아 지역의 신규유전 가동 및 생산 재개 등에 힘입어 증가세를 이어갔다.

시리아와 예멘의 석유생산은 2011년부터 시작된 민주화 시위의 여파로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2011년 시리아의 원유생산은 33만b/d였으나 2012년 들어 3분기까지 전년 생산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4만b/d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멘 역시 2011년 23만b/d의 원유를 생산했지만 2012년에는 3분기까지 16만b/d로 줄어들었다. 다만 예멘은 2분기에 살레 대통령 퇴진으로 소요사태가 안정화됨에 따라 2분기부터 원유생산이 점차 회복되는 추세에 있다.

남수단의 원유생산은 수단과의 송유관 사용료 분쟁으로 33만b/d의 원유생산이 전면 중단되었다. 이에 따라 2012년 3분기까지의 원유생산량은 평균 4만b/d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8월 중 수단과의 석유협상 타결로 2013년부터는 석유생산이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북해 유전의 고갈 및 노후화에 따른 생산량 감소세는 2012년 들어서도 이어졌다. 이로 인해 OECD 유럽의 석유생산은 2010년 3.54백만b/d에서 2011년 3.20백만b/d로 감소했으며, 2012년에는 3분기까지 2.94백만b/d를 기록해 감소세를 이어갔다.

반면 북미지역인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석유생산 증가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미국은 셰일오일 개발 가속화로 석유생산이 2010년 5.48백만b/d에서 2011년 5.64백만b/d로 증가했으며, 2012년에는 3분기까지 평균 6.23백만b/d로 50만b/d 이상 증가하였다. 캐나다 역시 고유가 지속으로 오일샌드 개발에 탄력을 받으면서 석유생산량이 2011년 2.02백만b/d에서 2012년 3분기까지 2.18백만b/d로 증가하였다.

그밖에 구소련에서는 동시베리아 신규유전 가동과 아시아에서는 중국, 인도 등의 원유생산 증가로 2012년 3분기까지 전년 동기대비 각각 10만b/d 정도 증가한 석유생산량을 기록 중에 있다.

다. OECD 석유재고 동향

2012년 OECD 원유재고를 살펴보면 1월에는 924.3백만 배럴로 5년 동월 평균치(956.8백만 배럴)와 전년 동월치(971.9백만 배럴)를 크게 하회하였으나 5월까지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4월에는 987.1백만 배럴로 5년 동월 평균치(988.7백만 배럴) 수준을 회복하였으며, 5월에는 1,006.7백만 배럴을 기록하여 5년 평균치(981.8백만 배럴)와 함께 전년 동월치(994.1백만 배럴)를 넘어서기 시작하였다. 6월

7) 원유와 NGLs, 그 밖의 바이오연료와 정제증분(Processing gain)으로 구성됨.

에도 OECD 원유재고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1,009.7백만 배럴의 높은 재고수준을 나타내었다. 7월부터 8월까지 원유재고가 2개월 연속으로 감소세를 나타내어 8월에 982.5백만 배럴로 줄어들긴 하였으나, 계절적으로 원유재고가 줄어드는 시기라는 점에서 여전히 5년 평균치(956.3백만 배럴)나 전년 동월치(951.2백만 배럴)를 상회하였다. 9월에는 996.5백만 배럴로 다시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며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재고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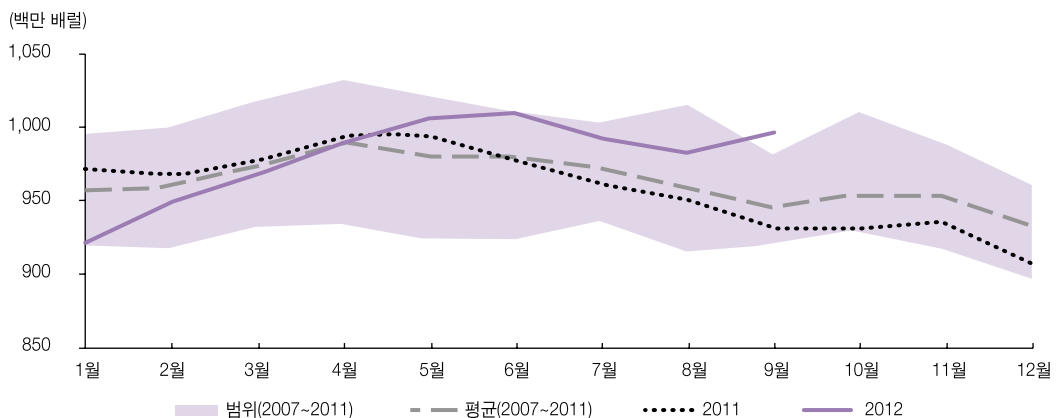
지역별로 살펴보면 미주지역의 원유재고가 2012년 1월 478.9백만 배럴에서 9월 509.0백만 배럴로 30.1백만 배럴 증가했으며, 유럽도 1월 291.2백만 배럴에서 9월 312.1백만 배럴로 20.9백만 배럴 증가하였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1월 154.2백만 배럴에서 9월 175.4백만 배럴로 20.8백만 배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OECD의 총 석유제품재고는 원유재고와는 달리 전반적으로 5년 평균치를 하회하며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1월 1,448.6백만 배럴을 기록하여 5년

동월 평균치(1,461.6백만 배럴)를 13.0백만 배럴 하회하였으며 전년 동월보다는 36백만 배럴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까지 감소세가 이어짐에 따라 6월에는 1,373.7백만 배럴을 기록해 5년 평균치와 전년 동월치를 크게 하회하였을 뿐 아니라 최근 5년간에 가장 낮은 재고수준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정제시설 가동률이 본격적으로 높아지는 7월부터 OECD 석유제품재고는 증가세로 돌아섰다. 7월에는 1,418.8백만 배럴로 전월대비 45백만 배럴 이상 증가했으며, 8월에도 1,436.2백만 배럴로 증가세를 이어가는 한편 9월에는 1,433.2백만 배럴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하지만 5년 평균치와 전년 동월치와 비교해 9월 석유제품재고도 여전히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5년 평균치와의 격차는 6월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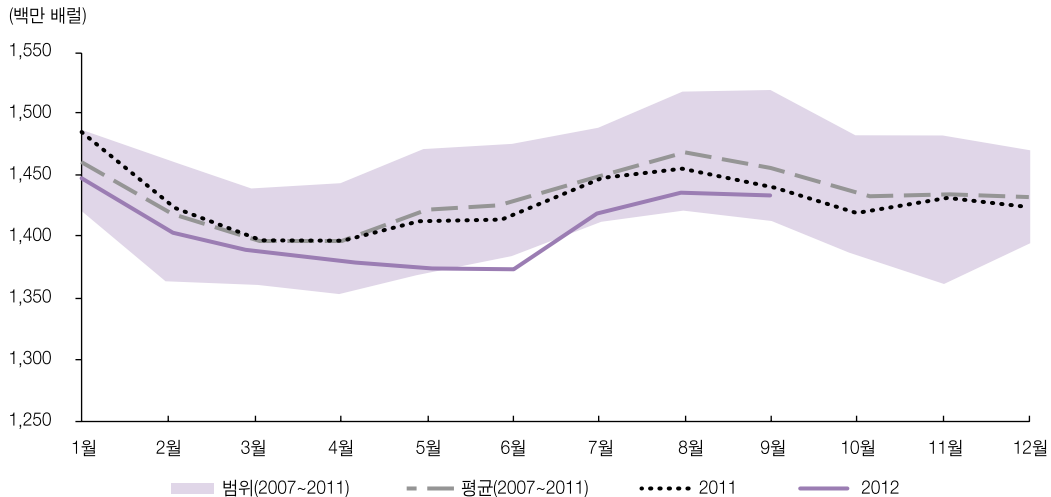
지역별로 살펴보면 미주지역의 석유제품 재고가 1월 698.7백만 배럴에서 9월 684.3백만 배럴로 14.4백만 배럴 감소했으며, 유럽 석유제품 재고는 1월 585.6백

[그림 3] OECD 민간 원유재고 추이



자료: IEA

[그림 4] OECD 민간 석유제품재고 추이



자료: IEA

만 배럴에서 9월 563.9백만 배럴로 21.7백만 배럴 감소하였다. 아시아·태평양에서는 1월 164.3백만 배럴에서 9월 185.0백만 배럴로 다른 지역과 다르게 20.7백만 배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OECD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석유수요를 나타냄에 따라 그에 상응하여 재고를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3. 2013년 석유시장 전망

유로존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세계 경기둔화로 세계 석유수요 증가세의 둔화 역시 2013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세계 석유생산 역시 비OPEC 국가들에서만 세계 석유수요 증가분을 능가하는 생산량 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석유수급 측면에서는 지속적인 개선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동지역의 정치·사회적 격동과 이란 핵문제를 둘러싼 긴장관계가 일정부분 해소되지 않는 이상 석유공급 불안에 기인한 현재의 고유가가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세계 경제는 내년에 도약을 위한 움추림이 되느냐 아니면 세계 경제불황의 원년이 되느냐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이미 유로존과 미국 등 주요 경제선진국들이 경제회생을 위한 다양한 처방을 소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내년에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향후 수년 또는 십여 년 간의 세계 경제향방에 매우 중요하다.

11월 26일 유로존 재무장관 회담에서 그리스에 대한 437억 유로의 구제금융 집행이 합의되면서 그리스는 자금에 대한 숨통이 트였다. 이로 인해 그리스가 당장 채무불이행에 빠질 가능성은 사라졌지만 2013년에 당장 135억 유로의 재정지출을 줄여야 할 상황

이다. 또한 그리스는 2016년까지 재정운영을 균형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결과다. 여기에 더해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올해 이미 2분기까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 들어갔으며, 독일과 프랑스의 경제성장도 1% 미만으로 둔화된 상황이다.

한편, 그동안 유로존은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으로 1,500억 유로 이상을 소진했으며, 유럽재정안정기금(EFSF)과 유로안정화기구(ESM) 설립으로 수천억 유로 이상을 유로존 금융권을 지원하기 위해 융통하였다. 이는 다시 말해 독일과 프랑스 등 상대적으로 경제적 위험이 낮은 국가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경기부양을 위해 사용할 돈이 줄어들게 됨을 의미한다. 때문에 전체적으로 유로존의 경제의 침체 상황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란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다만 관건은 그리스와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로존 위기국들이 금융지원을 바탕으로 내년에 경제성장 동력을 회복하여 유로존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지 여부다.

미국 경제는 올해 하반기부터 회복세로 돌아서는 데 성공했다. 그동안 3차에 걸친 양적완화와 함께 셰일 가스 및 셰일오일 개발 붐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어느 정도 확보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13년 미국 경제는 불투명하다. 가장 먼저 미국의 재정절벽(fiscal cliff)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실업률이 8% 수준에서 더 이상 줄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다. 또한 재정절벽이 해결되더라도 미국의 엄청난 재정적자를 어떻게 줄이느냐 하는 것이 결국 숙제로 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년의 미국경제를 낙관하기에는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이러한 선진 경제지역으로의 수출비중이 높은 중국

과 인도 등 신흥개도국들 역시 2013년에도 경제성장의 둔화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들 개도국들의 경제가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의 소비침체는 개도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2013년도 세계 석유수요 증가는 80만b/d(0.9%) 안팎의 낮은 수준에 머물러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세계 석유공급은 비OPEC에서만 100만b/d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석유수급에 여유가 더욱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미국의 셰일 오일 생산과 캐나다 오일샌드 생산이 90만b/d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올해까지 누출사고 등으로 가동이 원활하지 않았던 중국의 펑라이와 브라질의 프레이드 해상유전이 내년에는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남수단의 원유생산(30만b/d)이 수단과의 송유관 사용료 협상 타결로 내년부터 정상 재개될 예정이다. 다만 북해 유전의 노후에 따른 생산량 감소는 내년에는 이어져 비OPEC 원유생산 증가분을 일부 상쇄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석유수급 완화에도 불구하고 2013년에도 국제 원유가는 100달러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동 지정학적 불안과 OPEC의 생산량 조절이 국제 원유가를 100달러 밑으로 끌어내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란 핵문제와 시리아 내전은 내년에도 석유시장의 주요 관심사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란 핵협상이 교착상태를 지속함에 따라 이란의 원유생산도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리아 내전으로 중동의 종파 갈등이 다시금 증폭되고 있는 만큼 이란과 이라크, 레바논 등의 시아파 정권 국가와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수니파 국가 간 갈등도 심화될 수 있는

며 이스라엘과 이슬람권과의 갈등도 최근 하마스와의 무력충돌로 고조된 상황으로 내년에 이러한 중동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또 다른 중동전쟁으로 번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년의 국제유가도 단순히 석유수급 상황만을 놓고 하락할 것이라고 안심하기는 어렵다. 중동 내 무력충돌이 시리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이란 등으로 확대되는 것이 현실화된다면 국제 원유가는 100달러가 문제가 아니라 130달러를 손쉽게 넘어설 것이다.

한편, OPEC이 최근 12월 총회에서 현재의 생산한도 30.0백만b/d를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OPEC의 실질 생산량은 이미 31백만b/d를 크게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결정에 그다지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국제 원유가가 꾸준한 하락세를 나타낼 경우 OPEC 내에서 가장 많은 석유를

생산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감산을 통해 OPEC의 실질석유생산량을 줄여 유가 하락세에 제동을 걸고자 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2013년에도 석유시장의 공급초과 상황이 이어지겠지만 그 수준은 올해보다 매우 낮은 20~30만b/d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세계 석유재고 상황을 되짚어 보면, 2011년 세계 석유공급 부족으로 세계 석유재고가 약 1억 8천만 배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2012년에는 세계 석유공급 초과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3분기까지 세계 석유재고도 연초대비 약 3억 5천만 배럴 증가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2011년 연초보다도 1억 7천만 배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2010년 동안 세계 석유재고가 약 3억 배럴 감소했던 것을 감안하면 세계 석유재고는 여전히 2010년 초보

〈표 6〉 주요기관별 2013년 국제유가 전망

(단위: \$/배럴)

전망 기관	기준 유종	2011	2012					2013
			연간	1/4	2/4	3/4	4/4	
CGES (2012.11.19)	브렌트(Dated)	112.2	112.1	119.7	108.8	109.0	110.0	102.6
EIA (2012.11.6)	WTI	94.86	94.51	102.88	93.42	92.24	89.50	88.29
	브렌트	111.26	111.61	118.49	108.42	109.61	109.90	103.38
CERA (2012.11.28)	두바이	106.18	108.81	116.14	106.43	106.31	106.36	92.90
	브렌트(Dated)	111.27	111.27	118.48	108.28	109.60	108.70	94.23
	WTI	95.04	94.34	102.98	93.47	92.10	88.80	89.06
PIRA (2012.11.27)	브렌트	111.25	111.45	118.50	108.20	109.60	109.50	109.15
	WTI	95.05	93.95	103.00	93.45	92.10	87.30	100.90

주: CGES - 런던소재 세계에너지센터(Center for Global Energy Studies)

EIA - 미국 에너지정보청(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CERA - 미국 캠브리지에너지연구소(Cambridge Energy Research Associates)

PIRA - 석유산업연구소(Petroleum Industry Research Associates)

다는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2013년에 공급초과가 이어지더라도 여전히 세계 석유재고는 이를 감당할 여력이 충분해 보인다. 때문에 석유생산 과잉으로 석유공급자들이 더 이상 팔 곳이 없어 원유가를 크게 낮추는 일은 쉽게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 문헌〉

SERI 경제 포커스, 2013년 국제유가의 향방,
2012.10.30
www.petronet.co.kr

〈외국 문헌〉

CERA, Putting a Price on Fear, 2012.11.6
CGES, Monthly Oil Report, 2012.11.19
_____, FSU OIL Production in 2012, 2012.11
EIA, Short-Term Energy Outlook, 2012.11.6
IEA, Oil Market Report, 2012.11.13
www.eia.doe.gov
www.google.co.kr